

공군학사장교회, 창립 27주년 정기총회

공군학사장교회(회장 최병채)는 3월 19일 공군호텔에서 '창립 27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훈 공군전우회장 등 주요 외빈과 48기부터 147기 동문 등 260여 명이 참석해 세대를 초월한 화합을 다졌다.



1부 총회에서는 교육사 발전기금 4,300만 원 기탁 등 공익적 성과를 공유했으며, 최 회장은 조직 발전의 근간인 '만백(萬伯)운동' 완성 및 청년 장교 지원 계획을 밝혔다. 2부

에서는 공군본부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오랜만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항공과고총동창회, 임원 워크숍

공군항공과학교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진홍)는 3월 7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총동창회장 등 10명의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창회의 향후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3월 19일에는 모교인 공군항공과학교등학교에서 주관한 '명예 졸업증서 수여 행사'를 적극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8명에게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되었으며, 총동창회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며 따뜻한 축하의 뜻을 전

했다. 공군항공과고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끈끈한 화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총동창회, 모교 방문 및 생도 특강

공사총동창회(회장 황성진)는 2월 9일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영원한 빛' 추모탑을 참배하고, 김진오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하며 우수 후배 양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임관을 앞둔 제74기 생도들을 대상으로 '군인의 길과 장교의 덕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선배로서의 값진 경험을 나누었다.



아울러 총동창회 소개 시간을 통해 181명의 졸업생들이 임관과 동시에 평생회원으로 동창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서관전우회, 부대방문행사

부서관전우회(회장 차주성)는 1월 17일 신년 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3월 5일에는 '제11회 등반대회 및 부대 방문 행사'를 실시하면서 공군 제53전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차주성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군의 명예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영공 수호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식 위문 행사 이후에는 명성체력단련장에서 2부 친목 행사를 진행하며 화합을 다졌다.

공군ROTC장교회, 제53기 임관기념행사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는 1월 22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공군학군 53기 임관 축하행사'에 참석해 신입 장교들의 첫걸음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민 교육사령관과 최순송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주요 관계자와 장교회원들이 함께했다. 장교회는 공군학생군사학교에 격려금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우수 후보생들에게 장교회장 표창을 수여하며 사기를 높였다.

특히 53기 창립총회 후 이어진 '선배와의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히 현역 및 예비역 선배들이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진로 진단을 제공함으로써, 신입 장교들이 군 생활에 자신감을 갖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영하 회원, 문학상 대상 연속 수상 쾌거

본회 이영하 회원(공사 22기·예비역 중장, 전 주레바논 대사)이 올해 두 개의 권위 있는 문학상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문무(文武)를 겸전한 지성인'의 면모를 빛냈다.



이 회원은 1월 31일 자작시 '들꽃의 시간'으로 서정적 깊이를 인정받아 '김소월문학예문학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학으로 삶의 위로를 전하고 전우회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월 26일에는 동요 '과수원길' 작사자인 박화목 시인을 기리는 '제26회 박화목문학상' 시 부문 대상까지 수상하였다.

조국 영공 수호와 외교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온 이 회원은 연이은 대상 수상을 통해 문학가로서의 탁월한 역량까지 입증하며, 우리 공군과 전우회의 위상과 명예를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 협성사회공헌상 수상

영원한 '빨간 마후라'이자 6·25전쟁 10대 영웅인 김두만(99) 전 공군참모총장이 2월 27일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하는 영

예를 안았다. 김 전 총장은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 최초로 100회 출격을 기록했으며, 미군도 포기했던 '승호리 철교 차단 작

전'을 초저공 비행으로 성공시켜 영화 <빨간 마후라>의 모티프가 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협성문화재단(협성종합건설 정철원 회장 설립)이 주관하는 이 상은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되며, 부상으로 상금 5,000만 원이 주어진다.



기계와 인간의 일자리 투쟁 역사

박영준 (예 대령, 공사36기, 한국국가이력연구소장)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아틀라스(Atlas)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맞춰

현대차 주가도 고공행진 중에 있는데,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 3만 대 규모의 아틀라스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배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점이 생길 것이다. 사람과 달리, 로봇은 먹지도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가며 밤낮없이 일만 한다. 게다가, 시킨 일은 정확하게 잘하고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에는 관심이 없어 파업이라는 걸 모른다. 이제 희망찬 미래만 있을 듯하다.

과연,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통해 세계 피지컬 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현대차 내부사정에 달려 있을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노사합의 없이는 1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써부터 뜻을 박았기 때문이다. 시나브로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 본격화 될 기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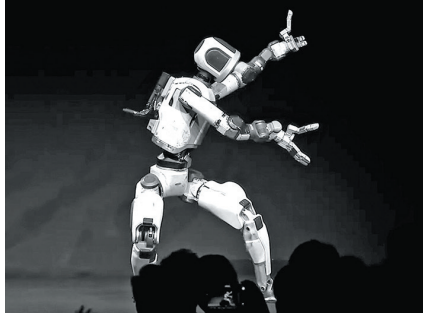
사실, 일자리를 둘러싼 기계와 인간의 투쟁은 꽤나 역사가 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기계)에 대해 저항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말 편직기 특허 거부사건(The Rejection of the Stocking Frame Patent, 1589년) /영국

1589년 영국에서 윌리엄 리(William Lee)가 손뜨개질보다 6~10배 빠른 속도로 양말을 짤 수 있는 장치(Stocking Frame)를 개발해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엘리자베스 1세는 ‘가난한 백성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계 도입을 거부한 사건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이 공동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에서 이 사건을 국가 실패의 전형적 사례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아제모글루는 이 사건을 기존 집단(속련된 직공집단+국가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창조적 파괴’를 거부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편직기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기존 숙련공 몰락이 기존 엘리트 직위를 붕괴시킨다는 사회질서 변화 우려 때문에 기술혁신을 거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후 일어난 1688년의 명예혁명과 비교해 ‘명예혁명이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로 변화시켰고 이게 영국 산업혁명의 근본원인이 되었다.(중략) 혁명 이전의 영국은 윌리엄 리의 편직기를 거부했던 나라였지만, 혁명 이후의 영국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2) 러다이트 운동 (Luddite Movement, 1811-1816) /영국

증기기관을 발명(1712)한 토마스 뉴커먼(Thomas Newcomen)에 이어 제임스 와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아틀라스(Atlas)

트(James Watt)가 이를 산업화 용도에 맞게 개량(1769)하여 증기방직기가 도입되면서 기존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밤에 공장에 침입해 거대한 망치(예눅)로 편직기와 직조기를 부수기 시작했고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건이다. 그들은 가상의 인물인 네드 러드(Ned Ludd)를 내세웠고 암호를 사용했으며 비밀유지 선서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당시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던 영국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가혹하게 진압하였고, 기계 파괴자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법을 제정하여 17명을 한꺼번에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나머지는 호주로 유배를 보냈다. 영국정부의 이런 진압 방식은 이어진 스윙폭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3) 스윙 폭동(The Swing Riots, 1830-1831) /영국

1830년 말이 돌리는 탈곡기가 보급되자 그 동안 ‘도리깨질’로 먹고 살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도리깨질(swing)에서 이름을 따와 스윙폭동(The Swing Riots)이라 불렀다. 군대를 동원한 영국정부의 강경한 진압으로 약 2천 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 중에서 25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483명이 호주로 유배됐으며 600여 명이 투옥되었다. 당시 영국정부는 자본가와 지주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결과로 폭력만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Charterism, 1838-1848)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차티스트 운동: 1838년 노동자들이 투표권, 비밀투표제 등 6개 요구사항의 인민헌장(The People’s Charter)을 발표한 사건.(차티스트 이름은 여기서 유래)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1842년 3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두루마리(Roll)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부결됨)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두루마리의 길이가 약 10km에 이른다. 이후 계속되는 청원 속에서 1867년에 드디어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었고, 1918년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그리고 1928년에는 모든 21세 이상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짐. 한편, 당시 노동자들의 청원서는 토마스 던컴(Thomas Duncombe)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그는 귀족이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신장과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 영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됨.

(4) 실레지아 직공 봉기(Silesian Weavers’ Uprising, 1844) /독일(프로이센)

독일 쉐레지엔(실레지아) 지방에서 당시 최신식 직조기(자카드 직조기, Jacquard

Loom)가 도입되자 일자리 상실에 분노한 직공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공산당 선언(1948)>을 집필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마르크스는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보면서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프롤레타리아를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계급’으로 재정의 하면서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로 평가하였다.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본래 의미는 ‘가진 게 지식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던 경멸의 용어였으나, 마르크스 이후 의미가 변화된 것이다.

(5) 적기조례(Red Flag Act, 1865) /영국

영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마차 업자들이 자동차 운행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자동차는 60야드(약 55m)에서 깃발(Red Flag)을 들고 시속 3km(시내) 혹은 6km(시외) 속도로 걷고 있는 사람의 뒤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당시 영국에서는 말 사육농가 및 마차 사업자, 철도 업자들의 로비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 법령으로 인해 영국에서의 자동차 산업 발전이 독일, 미국 등에 비해 30년이나 뒤쳐지게 되었다.

(6) 나막신 투척사건(Sabotage, 1897) /프랑스

노동운동가 에밀 푸제(Emile Pouget)가 자신의 저서 <사보타주(Sabotage)>를 통해

주장한 노동투쟁 방법으로, 1890년대 자동화에 반대하던 프랑스 직물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신고 다니던 나막신(sabot)을 던져 기계를 멈추게 했던 사건에서 사보타주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사보는 초기 포구장전식(전장식) 대포의 포탄 뒤에 덧대 발사압력을 높이는 나무판을 뜻하는 명칭이기도 했고, 현대의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일명 날탄)의 총알을 감싸는 날개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새로운 기계가 등장하면 일시적으로 반발해 왔으나 결국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인류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한 편의와 능률을 좇아 인간이 만들어 낸 기계도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무인기(드론)와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피지컬 AI 등의 발전속도를 보면서 진화하는 기계의 최종단계가 인간의 해방인지, 아니면 인간의 예측으로 귀결될지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

아무튼, 기존 말 산업을 보호하느라 미래의 거대 자동차 시장을 상실했던 영국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좋고 싫거나, 내 일 내 일의 문제를 떠나 기계화, 자동화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냐.

※ 더 많은 글은 KINI 한국국가이력연구소 블로그 (blog.naver.com/kini_kore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마후라, 그 불멸의 투혼을 마음에 새긴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병오년 새해 1월 26일, 조간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두 국가 원로의 인터뷰

와 사진이 많은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올해로 백수(白壽)를 맞이한 영공수호의 전설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과 그 전설을 스크린에 새겼던 국민배우 신영균 선생의 만남이었다.

김두만 장군은 6.25 전쟁 중 한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기록한 조종사다. 적의 대공포화 속을 뚫고 수없이 적진 상공을 누빈 호국 영웅이다. 신영균 선생은 그 치열했던 기록을 영화 <빨간 마후라>로 승화시킨 국민배우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 원로다. 전쟁 당시 실존 인물과 그를 연기한 배우의 60년만의 조우, 두 영웅의 만남 자체가 한 편의 영화이자 살아있는 역사 드라마였다.

영화 <빨간 마후라>의 모티브가 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은 단순한 전승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증언이다. 6.25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공산 세력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풍전 등화와 같았다. 이때 적의 남진 속도를 늦추고 보급로를 끊어낸 결정적 힘은 바로 한미 공군이였다.

평양 인근의 승호리 철교는 적의 핵심 보급로였다. 미 공군은 이 다리를 끊기 위해 여러 차례 출격했다. 그러나 미군은 당시 교범에 따라 적의 대공포 사정권 밖인 고도 4,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폭탄은 번번이 빛나갔다. 미군조차 실패한 ‘미

션 임파서블’이었다. 그때 우리 공군이 나섰다.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 지휘부는 김신 전대장, 김두만 편대장이었다. 이들은 비장한 결단을 내렸다.

“저공비행으로 철교 바로 위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것은 전술이라기보다 죽음을 각오한 돌격이었다. 적의 대공포가 빗발치는 1,500피트 저공으로 내려가, 철교 바로 위에서 폭탄을 쏘아 넣는 방식이었다. 미군이 기술로 폭격할 때, 우리 공군은 목숨으로 폭격했다.

1952년 1월 15일 오전 8시 25분 마침내 철교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미 공군조차 한국 조종사들의 투혼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영웅들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우리가 미군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낸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위국헌신의 ‘빨간 마후라 정신’은 단지 기록으로 남은 역사가 아니다.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공군의 DNA 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2022년 1월 4일 공군 서산비행단에서 발생한 최신에 스텔스기 F-35A의 동체착륙 사건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행 중 거대한 독수리가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며 엔진과 유압 계통이 마비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쳤다. 랜딩기어(착륙 바퀴)조차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긴급상황에서 조종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비상 탈출(Ejection)을 하거나, 바퀴 없이 착륙하는 동체착륙(Belly Landing)을 시도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조종사에게 있다. 비상 탈출을 하면 조종사는 100% 살 수 있다. 하지만 천억 원이 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는

파괴된다. 더 심각한 것은 바다에 추락할 경우 적성국이 기체(잔해)를 수거해 자유진영의 핵심 군사기밀이 통째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다.

당시 조종간을 잡았던 배 00 소령의 선택은 명료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기체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를 긁으며 착륙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고도 정교한 조종술로 기체를 안전하게 활주로 끝에 멈춰 세웠다. 세계 최초의 F-35 동체착륙 성공 사례다. 전세계 공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목숨 걸고 첨단 기술을 지켜낸 쾌거였다.

1952년 승호리 철교 위를 날던 김두만 소령의 투혼이, 2022년 서산 상공의 배 소령에게로 시공을 초월해 이어진 것이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군사관학교의 이 교훈은 단순한 구호

가 아니다. 그것은 선배들의 피와 후배들의 땀으로 지켜져 온 실체적 진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수많은 호국 영웅과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이다.

진정한 평화는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과 각오가 있을 때만 유지된다. 군을 중시하고, 제복 입은 군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말로 안보의 가장 튼튼한 토대다.

병오년 새해 벽두, 나는 마음속에 빨간 마후라 하나를 단단히 매어본다. 승호리 철교의 화염을 뚫던 그날의 결기, 서산비행단 활주로에 불시착하던 그날의 용기. 그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기로 각광을 받았으며, 이 기기를 활용하면 10분 만에 치료와 미용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상용화 목적으로 개발한 'AI 뷰티 미러'를 선보였는데 이는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가 피부 상태 등을 정밀 측정해 적합한 화장품과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는 '백설공주 거울'을 선보였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스스로 앉고 일어나며 이용자의 착석과 기립을 돕고 이용자 팔다리를 늘려주며 로보틱스 기술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 CES 특징은 중국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빠진 센트럴홀 중심부를 차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안경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업체 중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한 곳은 스마트 안경업체 '로키드(Rokid)'였다. 로키드의 AI 안경은 안경에 초록색 단색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조작용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결제를 위해 스캔 해줘'라고 말하고 QR코드를 보면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며, 내 개인 계정에 연결된 알리페이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함께 AI 안경을 출시하고 애플도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AI 안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더 이상싼 가격을 앞세운 추격자가 아니라 모든 기술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으며 복싱 로봇과 화장실 청소 로봇을 전시한 중국 부스에는 참관인들이 대거 몰렸다.

올해의 CES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로벌 무대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CES 혁신상'에서 전체 수상 기업 284개사 중 59%에 달하는 168개사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54개사), 중국(34개사), 대만(13개사)을 크게 앞지르며 3년 연속 최다 수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기업 '크로스 허브'는 "내가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도 증명하는 기술인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업이다. '영지식증명'은 4세대 블록체인 신원증명 보안체계가 되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CES에서 걸음으로 혁신상 트로피를 싹쓸이 했다지만, 미국·중국 정부가 규제 빗장을 과감하게 걷어내 자율주행이라는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과 생태계를 장악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받은 화려한 혁신상은 '파괴적 혁신자'가 아니라 기존 규칙 내에서 고효율 추격자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환경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통하여 '파괴적 혁신자'로써 그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증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CES 2026)에 가다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루츠팀 회장)



올해 1월초에 인공지능(AI)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로 떠나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 1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 'CES 2026'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가 열렸기 때문이다. 세계 160개국에서 43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참관자수만도 15만여 명에 달했다.

올해의 CES 5대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공간 컴퓨팅,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와 스마트 홈 이었다. 피지컬 AI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물리적 형태를 가진 AI를 말한다. 기업들이 로봇 청소기부터 산업용 기계까지 AI를 빠르게 탑재하면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CES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가 최초의 규모 있는 시장으로는 '자율주행·로보택시'라고 지목하면서 엔비디아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7년에 출시하겠다고 했다.

올해 CES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아마존의 로보택시 '족스(Zoox)'와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Waymo)'였다. 이 두 개의 로보택시는 운전대와 페달 등 운전자 제어장치가 아예 없는 완전자율형 택시로 행사장에 대기 중인 참관자들을 바쁘게 실어 날랐다.

현대자동차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아틀라스(Atlas)'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아틀라스'는 키 190cm로 56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360도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최대 5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으며, 사람처럼 촉각도 느낄 수 있어 2028년부터 자동차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틀라스'는 CES 2026의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현대자동차 라이벌인 일본의 도요타 그룹은 '우븐시티(Woven City)'를 통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 스마트홈 커넥

티드, 로보틱스 등을 묶는 초거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전체를 '피지컬 AI'로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CES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면적의 부스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중앙 홀에서 기술을 뽐냈으나 올해는 중앙 홀이 아닌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 전시장을 차렸다. 삼성전자가 중앙 홀을 떠나 윈 호텔로 옮긴 것은 전시 규모를 작년보다 30% 확장한 4628㎡이었으며 전시 부스 입장도 사전 신청이나 현장 등록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업체 관계자나 유튜버들의 기술 베끼기를 차단하고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한곳에 모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LG전자는 CES에서 홈로봇을 선보이며 가정용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LG전자는 27초짜리 영상에 'LG 클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로봇이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 수건을 집어 들고,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고, 아이와 주먹으로 하이파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LG 클로이드'는 양팔과 다섯 손가락이 달린 로봇으로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집안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LG전자는 외부 기업들,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국 피겨 AI와 중국 애지봇 등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도 홈로봇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공동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올해는 기존의 CES 주인공이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마케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스를 대폭 줄였다. 그 자리를 K뷰티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CES를 핵심 무대로 삼아 진출했다. K뷰티의 대표기업인 에이피알,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이 총 출동했다. 에이피알은 '탄력케어' '흡수케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서 구현하는 뷰티 디바이스를 공개했고, LG생활건강은 LED 기술을 활용한 '하이퍼 리췌베네이팅 아이 패치'가 CES 혁신상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스카 뷰티 디바이스(Scar Beauty Device)'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으며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 커버를 한

벚꽃잔치

이윤우 (예 소령, 공사6기)



화려한 벚꽃 만발할 때면

해마다 거니는 정든 벚꽃길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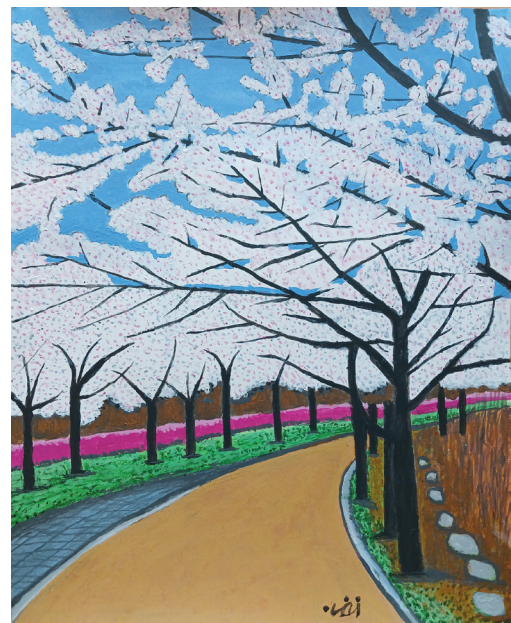
어린이는 부모님과 처녀 총각은 연인들과

성인은 동반자와 짝없는 노인은 친구들과

뽐내는 꽃망울에 솟는 흥겨움

얼시구 절시구 지희자 좋다

봄을 즐기는 잔치가 따로 없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미 버지니아 바이블대학교 부총장)



대한(大寒)도 지나갔지만, 아직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겨울의 한복판이다. 이런 겨울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어울릴까.

매년 한 해가 저물어갈 때 느껴지는 감정은 대개는 우울하고 착잡함이다. 한편으로는 저무는 해의 꼬리에 이어오는 새해는 신선함과 희망을 선물한다. 묵은 시간을 떠나 보내고 새 시간을 맞이하는 이 두 감정은 얼 듯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 감정은 동시에 서로를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에 늘 함께 자리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부터 사계절이 있어도 삼한사온(三寒四溫), 낮과 밤의 기후변화,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연말연시가 되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재미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한 것 같다.

오직 자신만의 먹이만을 준비하기 위해 땅바닥만 보고 땀 흘려 열심히 양식을 모으지만 아쉽게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이기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땅바닥만 쳐다보며 살다 보니 시야가 좁고,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 마음에 여유도 없이 다른 것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다. 그런 삭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인생의 기준은 '행복한 삶'이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행복했는가? 아닌가? 혹은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인가? 아님 불행한 것인가? 라는 잣대는 인생의 목

표 수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불행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각자가 정한 행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좋지 못한 환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나, 좋은 외적 환경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 진정한 내적 만족과 행복은 바로 내적인 보람과 의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렵고 좋지 못한 외적인 환경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다.

간디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역설한다. 중국 속담에도 '평생을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했다.

어쩌면 행복이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얻어 가는 데서 느끼는 '희열의 채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잘 다듬어 가는 행복의 다스림에 있을 수도 있다.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거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베풀 수 있다는 즐거움은 여가 활동, 봉사를 할 수 있게 한 건강과 열정으로 이어지며 감사의 마음이 되고 또 자신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의 감사를 느끼게 된다.

간디가 말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한 것처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꽃은 피고 지고, 바람도, 구름도, 강물도, 세월도, 우리의 삶까지도 모두 흘러가듯 이 세상에 멈추는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든 이 세상을 떠날 땐 흔히 말하는 대로 빈손으로 간다.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고 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그렇지 않다. 움켜쥐고 있을 땐 모두를 놓고 가지지만 나눔이 있을 땐 다르다. 남은 자들은 베푼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또 떠난 사람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 떠난다. 빈손이 아니다.

다른 이웃을 위해 나눈 것은 사자(死者)가 가져가는 몫이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대신 자연이

주는 정서적인 감성을 잃어버리게 했다. 결국은 의지하던 지팡이마저 놓고 홀로 떠나야 할 우리네 인생이다.

바라기는 병오년 새해에는 대자연 속에서 아침마다 밝은 햇살을 바라보며 거리의 소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아무리 퍼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베푸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땅바닥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흄냄새를 맡을 줄 아는, 그리고 진정 사람의 향기, 땀 냄새가 나는, 그럼 삶이 한없이 그림다. 그런 병오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호, 그 위대한 항해

이영하 (예 중장, 공사 22기, 전 레바논 대사)

우리는 하나의 배를 타고 있다.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삶을 안고

같은 바다 위를 건너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파도는 때로 우리를 흔들고

어느 날은 방향조차 잃은 듯 표류하는 시간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배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돛을 올리고 누군가는 방향을 잡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새는 틈을 막는다.

그 수많은 손들이 모여 하나의 항해가 된다.

대한민국호는 강한 힘으로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배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방향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다.

나는 이 배 위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눈빛들

그 눈빛 하나하나가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아간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서로를 놓지 않는 한

이 배는 끝내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항해 위에서

조용히 한 사람의 몫을 다하려 한다.

[기획연재: 고전에서 얻는 지혜] 罔談彼短 靡恃己長 (망담피단 미시기장)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고, 나의 장점을 믿지 않는다”

윤우 (예 소장, 공사 28기, 사단법인 국어고전문화원 명예이사장)



천자문(千字文)에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에도 길잡이가 되어주는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23번째 문장인 '망담피단 미시기장'은 진정한 자기 수양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명구(名句)입니다.

'罔談彼短(없을 망, 말씀 담, 저 피, 짧을 단)'은 타인을 향한 낯선 시선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즉,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라고 했는데,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군자는 자신의 행실을 닦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므로 남의 장단점을 따지고 점검할 겨를이 없다(君子急於自修 故不暇點檢人之長短也)"라는 구절도 이와 뜻이 통

한다고 하겠습니까.

'靡恃己長(아닐 미, 믿을 시, 몸 기, 길장)'은 자기의 장점을 믿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당부로서 논어 태백(泰伯)에 나오는 "설령 주공처럼 훌륭한 재능을 가졌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已)"라는 공자의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점을 가졌더라도 그것만 믿고 기대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남의 단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장점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수신(修身)의 길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 전우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